

## 이번 주말 여기 어때요? 12월 셋째 주

December 13, 2017 | 손영옥 선임기자

### **전시** 마이클 주 'Single Breath Transfer' (~12월 31일 국제갤러리)

내용: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마이클 주가 선보이는 10년 만의 대규모 개인전. 구겨진 종이봉투가 얼어붙은 듯 유리로 제작돼 있다. 보물처럼 높은 좌대 위에 전시돼 오히려 낮설다. 사람의 날숨을 종이 및 비밀봉투로 포착한 후 유리로 주



조해 제작한 것이다. 순간에 흠어지는 인간의 숨을 유리주물공법으로 영구화시켰다. 사라지고 흠어지는 인생도 저렇게 붙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

◎한줄평: 해석의 깊이가 돋보이는 전시

손영옥 선임기자

별점: ★★★★★